말씀과 행함 사이의 거리 좁히기

(신명기 28:1~68)

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3.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행함 사이의 거리 좁히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말씀과 행함 사이의 거리 좁히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미 복음 송 중에서 이 말씀으로 만든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하는데 굉장합니다. 정말 복지는 복지인가 봅니다. 마이더스 왕의 손이 닿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임합니다.
반면에 16절부터는 정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나는 삶과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저주 속의 삶을 가르는 경계는 바로 1절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복을 꽉꽉 눌러 담는 삶을 살 것인지 저주를 꽉꽉 눌러 담아 살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 한 가지가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보면 36절 이하에 결국 구약의 선민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6~37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모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이렇게도 심각한데 왜 구약의 선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행함의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우리의 행함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그 거리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참 중요한 얘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글씨연습 교본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린다.’라고 할 때 말씀을 듣기 전의 나 자신의 상태가 고스란히 유지되면서 말씀의 문자를 따라서 행위를 하는 것이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글씨 연습을 할 때, 글씨연습 교본을 보면 점선으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 점선을 따라 연필로 글씨를 써내려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명령이 들리면 그 말씀과 명령을 글씨교본의 새겨진 점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속사람)이 육체를 필기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의 교본위에서 내 행위를 움직여 가면서 말씀과 명령을 지켜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과 행함 사이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들리면 우리 몸이라는 필기도구를 움직여서 써야 하는 글씨교본이 아니라, 우리 몸을 움직이는 행위 이전에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일으키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다짜고짜 말씀을 듣기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지켜야 된다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갖고 있는 기초 중의 기초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지킨다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말씀과 행함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위의 교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의 증거로 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육성으로 전달이 되지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있습니다. 또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모세가 말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이 모든 형태의 기록된 말

씀과 명령은 우리 행위의 교본이 아니라 증거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관심하기 전에 말씀들은 그 자체로서 증거물인데, 형상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요새 '신 이산가족'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산가족은 6.25전쟁 같은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들로 인해서 가족이 헤어지는 것인데, 신 이산가족은 북한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헤어지는 경우입니다.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공안이 잡으려고 쫓아올 때 도망을 가다가 둘 다 잡히면 안 되겠기에 갈라져서 도망을 갔는데, 서로 잡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20년 이상을 못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 들어가서 살다가 잠깐 부모님이 나간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공안이 애들을 잡아간다든지 하는 일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일 나갔던 아버지가 그대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잡혀가면 아이들은 눈이 빠지도록 부모님을 기다리지만, 부모님은 그대로 북송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들어가기에는 공안들이 많이 지키고 있으니,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태국 등지로 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 어린 자식이나 동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등지에서 혹시나 TV를 볼까 해서 영상 편지를 띄웁니다. 베트남에 있든지 몽고에 있든지 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다못해 인신매매로 팔려가서라도 제발 하늘아래 살아만 있어 달라는 절규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루트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한 조각의 소식을 듣게 되면, 이 가족들의 상황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잃어버렸던 가족들의 생존의 증거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전에, 영이시고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이산가족을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듯이, 그 증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의 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성소엔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바깥의 성소에는 분향단과 떡 상과 등잔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를 뜻하는데 지성소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며 사는 이유는 떡 상으로 표현되는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지성소에 무엇인가를 들여놓는 이유는 그것을 추구해서 얻으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

입니다. ‘등잔대’는 그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신을 추구해 들어가는데, 내게 유익의 유무와 호불호를 구분하는 분별력이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돈이 신이고, 자식이 들어오게 되면 자식이 신이고, 건강이 들어오게 되면 건강이 신이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좋다고 하며 도움이 안 되면 나쁘다는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 건강, 외모 등이 들어와 있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흥이나 예배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이산가족을 맞이하듯이 내 마음의 신의 자리에 모셔 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신을 들여놓고 진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신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질 때,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마음의 지성소에 사업의 성공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이렇게 다른 신을 들여놓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을 때에 선민들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의 율법주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바리새인적 율법주의입니다. 이미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신으로서 들여놓았을 때 ‘말씀과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돈을 들여놓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옳다구나!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돈을 추구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관하시므로 물질 주관자의 마음에 들어서 자기 마음에 들여놓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벌리면 물질 주관자인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마음에 다른 신을 들여놓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른 신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는 세상적인 율법주의로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고, 마음의 지성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완전히 무시되고 지워집니다. 귓전을 울릴 뿐 깊이 들어와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 건강, 자녀 형통, 승진, 부흥 같은 다른 신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내가 사업을 잘 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내 아이를 서울대에 들여보내고 싶은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결국은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을 찾습니다. 성공하려면, 자식 잘 키우려면, 건강하려면,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세상이 말하는 율법을 찾습니다. 서점에 나가보면 모든 책이 율법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읽고 좇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교회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같은 것들을 강연하고 그룹을 만들어 모임이 형성이 되는데 이건 저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물을 확보했으면 당연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고, 마음의 지성소인 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들어야 하는데, 그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기쁘고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다른 신들로 채운 이상 말씀은 다 비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율법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야기했다든지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야기했다든지 기업의 성공을 연구한 연구원들이 기업성공 원리를 이야기했다며 가르치고 있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율법주의가 나타납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고 말씀이라는 증거가 주어지기 전에 있던, 다른 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율법주의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와 세상율법주의의 혼합형태가 나타는데 그것이 요즘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 율법주의에서 바리새적인 율법형태는 교회가 조직의 번성과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 내는 새로운 율법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 봉사하라, 교회에 충성하라, 헌금 많이 하라, 구제하라, 전도하라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모든 영적 에너지를 교회 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쏟아버리게 합니다. 주일 하루 교회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칠 때까지 교회에서 충성했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복을 기대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그들과 경쟁을 하면서, 교

회에서 충성 봉사 헌금 구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고,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교회에서 소진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영적인 파워가 제로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파워'라는 것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말씀과 명령은 '십자가 사건에 다 모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이 선포되고 있는 한 지금의 나의 사건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는 죽은 자다. 예수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인정하라. 삶의 모든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떡 반죽 그릇을 만질 때, 밭에서 일을 할 때,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이 생각을 하라'는 것인데 모든 명령이 십자가로 합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있던 이 세상 신들을 몰아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고 싶어져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프리즘에 빛이 모였다가 산란현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모든 구약과 신약의 말씀과 명령들이 십자가로 모였다가, 내가 그 십자가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의 다른 신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의 다른 신의 실제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자식을 집어넣었다면 자식의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에 대해 죽어야 하고, 돈을 넣었다면 돈의 실재 앞에서 죽지 않는다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을 두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바리새인적 율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제일 하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은 복이 아닌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해야 합니다. 복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돈, 자식, 건강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이기만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함 사이의 거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모셔 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복 받은 복지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평생 좇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복 없다고 징징거리고 울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듯이 '다른 신을 집어넣고 살아가는 나는 죽은 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면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고, 복을 주고 싶어 안달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나가도 우리의 삶을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아버지의 말씀과 행함 사이의 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온전히 지켜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